

제26회
생글논술경시대회
해제 및 예시답안

고3 연세대 인문 유형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생글생글 

■ 출제의도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일까? 이타적일까?

이 해목은 논쟁이 현대사회에서 다시금 깨어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사회문제와 연관될 수 있다.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입장은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굳건하게 뒷받침해준다. 반면에 인간은 이타적인 존재라는 입장은 복지와 분배, 사회안정망을 우선하는 사회 건설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 이처럼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는 사회를 대하는 관점이다.

물론 인간이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의 논쟁은 결론을 맺기 어렵다.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으로 보는 인간들이 다수를 이루는 사회에도 인간의 본성이 이타적임을 말해주는 사례가 발견되고 인간의 본성을 이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는 사회에도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임을 증명해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어떤 입장이 맞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인간본성과 관련한 수많은 논의 및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이리라.

특히 장기적 불황으로 인해 사회·경제적으로 선택 폭이 좁아진 요즘은 한 번의 선택으로 지불하게 되는 기회비용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타인에게 무관심한 자기중심적 사고와 이기주의로 인해 주변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 데에 무감각한 이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언론을 장식하기도 한다. 이런 혼란의 시기에 인간의 본능과 이성이 가리키는 방향이 선악과 기호의 문제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되물어볼 만한 질문이다.

실제 대입논술에서도 이 주제는 단골로 출제되고 있다. 논술로 대학진학을 꿈꾸는 학생이 기본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내용이라는 말이다. 예전에 출제되었기에 다시 출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판이다. 이 주제는 경쟁과 협력, 분배, 정의관, 사회체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빈출 주제로 꼽힌다는 것을 잊지 말자.

■ 제시문 분석

(가)

자연 상태에서의 전쟁은 인간 존재의 타고난 정념(情念)들로부터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어떤 가공할 권력이 실제로 존재하여 사람들이 그 권력이 가하는 위협에 공포를 느껴 계약을 이행하고 자연법을 준수하지 않는 한, 전쟁은 피할 수 없다. 달리 말하자면, ‘칼’을 동반하지 않은 계약은 말에 불과하며 인간의 생명을 전혀 보장할 수 없다. 설령 많은 사람들이 계약에 의해 집결한다고 하더라도 그들 각자가 자신의 개별적인 판단과 욕구에 의해 움직인다면, 그들은 공통의 적이나 상호간의 권리 침해에 대해 어떠한 방위나 보호도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들의 힘을 최고로 발휘하고 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한 의견이 가지각색일 경우에 그들은 상부상조하기는커녕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면서 쓸데없이 내부 대립만 심화시키게 되고, 끝내는 스스로 무력해지고 만다. 그 결과, 그들은 비록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협력이 아주 잘 되는 집단에게조차 매우 쉽게 제압당하게 되며, 심지어 공통의 적이 없을 때라도 각자의 개별적인 이해(利害) 때문에 서로 간에 전쟁을 벌이게 된다. 물론, 그들 대부분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권력이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정의를 지키고 자연법을 준수하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 만일 이러한 가정이 옳다면, 권력에 대한 복종 없이도 서로 간에 평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어떠한 시민 정부도 어떠한 국가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사실상 터무니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태생적으로 동의나 합의가 아니라 정념에 따르는 맹목적인 자기보존 법칙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연 상태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들이 ‘칼’을 소유한 하나의 동일한 인격체와 결합해야 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마치 인간들 각자가 “나는 나 자신을 스스로 통치하는 권리를 그 인격체에 완전히 양도하고 그의 활동을 전적으로 승인한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대다수의 인간이 그러한 인격체에 통합 내지 통일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인격체를 ‘국가’라 부르고자 한다. 그 인격체가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지상의 신(神)’이라 불리는 까닭은 그 인격체가 모든 개인이 그에게 부여한 강대하고도 전능한 권력과 힘을 활용하여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무한한 자기보존 경쟁을 종식시키려는 하나의 통일된 의지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 제시문 (가)는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일부분이다. 제시문에서는 인간은 정념에 휩싸여 움직이는 이기적인 존재이며 태생적으로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는 존재라고 한다. 제시문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를 홉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라고 표현했다. 고교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배우는 부분이기에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자연상태에서 각자 자기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갈등하고 투쟁하다보면 자기 이익의 훼손이라는 역설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계약을 통해 국가를 성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기적인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유지되려면 계약과 강제력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성립된 국가는 모든 개인이 부여해준 무소불위의 권력이 힘을 이용하여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시문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이기적으로 보고 이러한 인간본성론에 입각해 사회는 강력한 국가에 의한 운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나)

The theory of natural selection can be extended into what Robert L. Trivers (1971) has called **reciprocal altruism**. The paradigm offered by Trivers is good samaritan behavior in human beings. A man is drowning, let us say, and another man jumps in to save him, even though the two may not even have met previously. The reaction is typical of what human beings regard as "pure" altruism. However, upon reflection one can see that the good samaritan has much to gain by his act. Suppose that the drowning man has a one-half chance of drowning if he is not assisted, whereas the rescuer has a one-in-twenty chance of dying. Imagine further that when the rescuer drowns the victim also drowns, but when the rescuer lives the victim is always saved.

If such episodes are extremely rare, the Darwinist calculus would predict little or no gain to the fitness of the rescuer for his attempt. But if the drowning man reciprocates at a future time, and the risks of drowning stay the same, it will have benefited both individuals to have played the role of rescuer. Each man will have traded a one-half chance of dying for about a one-tenth chance. A population at large that enters into a series of such moral obligations, that is, reciprocally altruistic acts, will be a population of individuals with generally increased genetic fitness. **The trade-off actually enhances personal fitness and is less purely altruistic than acts evolving out of interdemic* and kin selection.**

*interdemic=interpopulation

이 영어 제시문의 핵심 단어는 'reciprocal altruism'로 '호혜적 이타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 정확한 단어를 알지 못하더라도 제시문의 내용을 통해 유추해야 한다. 제시문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행위가 순수 이타주의로 보이지만, 이는 어떤 개체가 자기에 대해 이타적으로 행동한 개체를 골라서 자기도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라 한다. 호혜적 이타주의(reciprocal altruism)라고 명명된 트리버즈 이론에 따르면, 이 순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미래의 보답을 기대하며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로 인해 인간을 비롯한 많은 동물들의 사회성이 진화했다는 것이다.

[지문 독해]

자연 선택 이론은 Robert L. Trivers (1971)가 호혜적(상호) 이타주의라고 부른 이론으로 연계될 수 있다. Trivers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착한 사마리아인의 행위)에 대해 연구하였다. 예컨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이를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은 인류가 "순수한" 이타주의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는 것이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은 이를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예컨대, 물에 빠진 사람을 그냥 두었을 때 물에 빠져 죽을 확률이 절반이고, 구하려고 물에 뛰어든 사람이 죽을 확률이 1/20 이라고 하자. 또한, 구하려는 사람이 죽는 경우는 반드시 물에 빠졌던 사람도 죽고, 구하려는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는 물에 빠졌던 사람도 살아난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경우가 굉장히 드물게 일어난다면 다윈학파는 이러한 행동이 구하려는 사람의 적응도 (fitness)에 별 도움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물에 빠졌던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구해 주었던 사람을 구해주려고 한다면, 그리고 물에 빠져 죽을 위험이 같다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 했었던 경험에 의해 두 사람이 모두 혜택을 받을 것이다. 즉,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에 빠져 죽을 절반의 확률을 1/10의 확률과 맞바꾸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도덕적 의무를 차례차례 수행하는 인구는 일반적으로 점진적으로 유전적 적응도가 높아지는 사람들의 집단일 것이다. 이러한 상호 교환 행동이 개개인의 유전적 적응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순수한 이타적인 행동이라기 보다는 인구간의 혈연 선택 (kin selection) 으로부터 발생하는 행동이다.

(다)

동물이 인간이나 동물로부터 어떤 물건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 또는 그 동물의 호의를 얻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어떤 설득 방법이 없다. 강아지는 어미에게 꼬리를 치며 아양 떨고, 애완용 개는 먹을 것을 원할 때 온갖 아양을 떨어 식사중인 주인의 주의를 끌려고 한다. 사람들도 자기의 동료에게 이와 같은 수법을 때때로 사용한다. 남들로 하여금 자기의 기분에 맞게 행동하도록 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을 때, 사람은 남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 온갖 아첨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이렇게 할 만큼의 시간 여유를 가지지 않는다. 문명사회에서 그는 항상 무수한 사람들의 협력과 원조를 필요로 하지만 그는 평생에 몇 사람의 친구를 만들 수 있을 뿐이다. 거의 모든 다른 동물류에서 각각의 동물은 성숙하면 완전히 독립하며, 자연 상태에서는 다른 동물의 원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항상 동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오직 동료의 자비에만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 동료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자기의 요망 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그들 자신의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낫다.** 타인에게 어떤 종류의 거래를 제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하려고 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면,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러한 모든 제의가 의미하는 바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호의의 대부분을 상호간에 얻어낸다. 우리가 식사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인간성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이기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의 이익을 이야기한다.**

☞ 제시문 (다)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발췌하였다. 제시문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비심에 기대는 것보다 이기심에 기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개념과 연관된다. 원문에서 발췌된 부분 바로 다음 내용이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면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나 국가 전체의 이익을 증대된다’는 것이다. 물론 제시문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기에 답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아담스미스의 이러한 사상은 고교과정에서 비중있게 다루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쉽게 연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 기대한다.

(라)

‘자발적 기부행위’에 대한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실험 참가자들은 일정한 금액의 돈을 제공받는다. 참가자들은 제공받은 돈의 일부를 공동계좌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하고 남은 금액은 자신이 가질 수 있다. 실험 참가자들의 기부의사결정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공동계좌로 기부된 금액은 모든 실험 참가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 만약 공동계좌에 기부된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 공동계좌에 입금된 총액을 상회하는 금액이 모든 실험 참가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실험에서 공동계좌에 기부하는 것은 공공재의 공급을 위한 협력을 의미한다.

☞ 제시문은 ‘자발적 기부행위’에 대한 실험에 대한 설명이다. 이 실험은 게임이론에서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상된 것으로 유명하다. 공공재 공급에서 발행하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사이의 협력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실험으로 볼 수 있다. 제시된 실험의 조건과 각 조건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는 일정금액의 돈을 제공받고 제공받은 돈의 일부를 공동계좌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 기부하고 남은 금액은 자신이 가질 수 있고 공동계좌에 기부된 금액은 모든 참가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는 것, 공동계좌 기부된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입금 총액을 상회하는 금액이 참가자 모두에게 분배된다는 것, 공동계좌 기부는 협력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

■ 문제 분석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00자 내외, 50점)

1-(1)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인간 본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연세대 논술은 ‘다면사고형 논술’이다. 하나의 주제, 혹은 제시문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특징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문제가 바로 세 개의 제시문을 비교분석할 것을 요구하는 1번 문제이다. 거의 모든 대학에서 ‘비교분석’ 문제가 출제되고 있지만 3개의 제시문을 비교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연세대가 유일하다. 따라서 연세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면 반드시 비중있게 학습해야 할 문제 유형인 것이다.

이번 문제에서는 ‘인간본성’에 대한 관점을 비교분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각각의 제시문에 드러나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보면 인간 본성을 이기적으로 보는 제시문 (가)와 (다), 이타적으로 보는 (나)로 쉽게 구분된다. 그러나 제시문 (가)와 (다) 사이에도 이기적 본성에 대한 이해가 사뭇 다르다. (가)에서는 인간의 이기심이 전쟁상태, 즉 갈등을 발생시키는 부정적인 본성으로 국가에 의해 강제되고 관리되어야 할 본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다)에서는 각 개인의 이기심이 사회전체에도 이득이 된다는 관점이다.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 (다)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는 선택, 행위를 한다는 내용은 제시문 (나)의 호혜적 이타주의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이타적 행위가 ‘순수한 이타성’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미래의 보답을 기대하는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점에서 (다)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이기심을 자극하고 충족시키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과 맥락이 맞아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2)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관점에서 다음의 상황을 평가하시오.

기업은 근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제 조직이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사회에 대해 기업이 지녀야 할 책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면서 노동자의 삶의 개선, 환경 보호, 지역 공동체와의 유대강화 등 공익을 함께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경영주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노동자들을 최대한 이용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더 많은 양의 상품을 파는 데만 몰두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시민단체와 사회활동가 그리고 정부는 기업이 노동, 환경, 제품의 품질, 가격, 공정 거래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 얻은 수익의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문제에서는 평가대상과 활용해야 할 제시문의 핵심논지가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제시문 (나)와 (다)의 공통점 및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석 정리했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각각의 제시문의 논지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만 파악하면 쉽게 해결될 것이다.

먼저, 제시문 (나)는 ‘호혜적 이타주의’에 주목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분석할 것이다.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일정부분 사회에 환원해야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상황은 호혜적 이타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노동자의 삶의 개선, 환경보호, 지역 공동체와의 유대강화 등 공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타적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이롭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주목해야 한다. 기업은 근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 조직이지만 소비자와 사회를 고려하지 않은 배타적인 이윤추구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이윤추구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이 자신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이유는 시민단체와 사회 활동가 그리고 정부로부터 기업이 노동, 환경, 제품의 품질, 가격, 공정 거래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압력을 받기 때문이고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기업의 이윤추구 또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해야 한다.

[문제 2]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00자 내외, 50점)

2-(1) 어떤 국가에서 제시문 (라)의 연구를 활용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고자 한다. 이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재원확충 방안으로 작동되기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에 대해 논하시오.

사회과학 연구에서 실험은 변인의 통제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연과학 연구에서의 실험에 비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과학에서의 실험은 대부분 이미 존재하는 인간사회의 양상을 관찰하며 그 결과를 통해 이론을 정립,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개인 혹은 집단이 왜,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 그러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인과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과학 연구의 특징을 기반으로 (라)의 연구결과가 실질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재원확충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추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시문에 실험 상황 및 조건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실험 참가자들의 기부 의사결정은 동시에 이루어지고 공동계좌로 기부된 금액은 모든 실험 참가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는 것에 주목하여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을 추론할 수 있다.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구상할 때, 자발적 기부행위가 실질적인 재원확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임승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말해 ‘모든 구성원들이 모두 기부에 참가해야 한다’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만약 제공받은 금액을 기부하지 않는 참가자가 생겼다고 가정해 보자. 누군가는 기부하지 않았더라도 공동계좌에는 일정금액이 모일 것이고 그것을 참가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면 기부를 전혀 하지 않은 참가자는 제공받은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가지게 된다. 이는 다른 기부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갖게 되는 것으로 기부자들과의 금액차이가 그만큼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이러한 무임승차자가 늘어난다면 공동계좌에 모이는 금액은 그에 비례하여 줄어들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공동계좌에 기부되는 금액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무임승차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2-(2) 제시문 (라)의 연구결과는 아래의 자료와 같다. 제시문 (나)와 (다)를 이용하여 <자료 1>과 <자료 2>를 설명하시오.

<자료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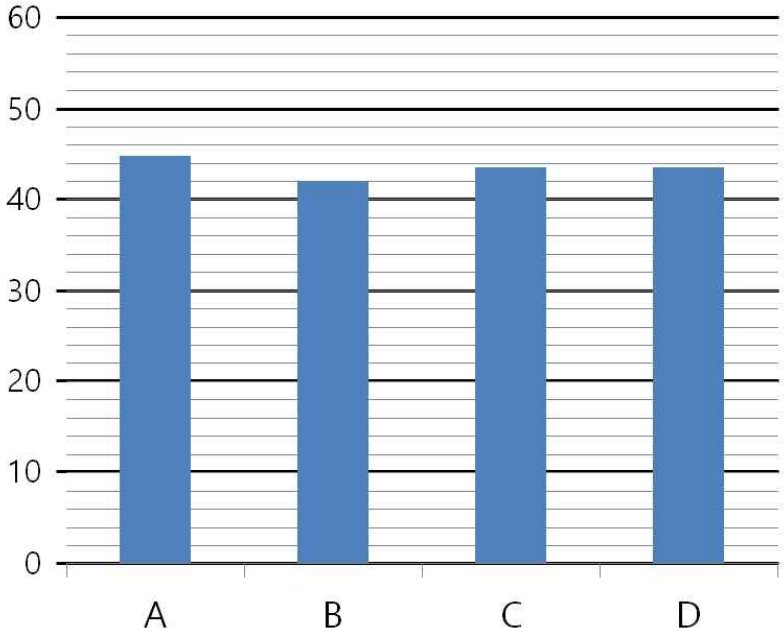
$$\text{공동계좌 기부비율} = \left(\frac{\text{기부총액}}{\text{초기제공총액}} \right)$$

	상황 1	상황 2
의사소통 원활	47%	31%
의사소통 어려움	41%	21%
전체	44%	26%

상황 1 : 서로 잘 아는 같은 지역 거주민들로 진행
 상황 2 : 안면이 없는 다른 지역 거주민들로 진행

<자료 2> 국가별 공동계좌 기부비율 평균

$$\text{공동계좌 기부비율} = \left(\frac{\text{기부총액}}{\text{초기제공총액}} \right)$$



논술 문제에서 ‘자료’는 문제가 지시하는 특정 입장을 뒷받침 혹은 반박하는 근거를 제시해준다. 따라서 자료 자체를 해석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활용해야 하는 제시문의 논지와 연관성에 입각하여 분석해야 한다. 문제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료를 해석하게 되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중 어떤 것에 주목해야 할지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어떤 내용에 주목해야 할지를 규정하는 게 바로 논제의 요구이므로 반드시 논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는지를 기준삼아 접근해야 하는 것이다.

자료 1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실험의 평균 기부비율을 계산해보면 35%이다. 이 결과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 협력하였음을 의미한다.

둘째, 기부비율이 잘 아는 사람들끼리 한 실험에서 더 높았다. 아무래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것이고, 이는 협력성 즉 이타적 행위를 이끄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의사소통이 허용된 경우에 기부비율이 더 높았다.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이 작용했으리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넷째,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행한 실험(6% 차) 보다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진행한 실험(10% 차)에서 의사소통의 영향력이 더욱 컸다. 의사소통에 의한 사회적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르는 사이에서 더 많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료 2는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평균 기부비율이 약 43%에 해당한다. 이는 자료 1의 평균보다 높은 수치이다. 자료 1에서 실험 상황 1과 2, 의사소통 가능여부에 따라 기부비율이 달라지는 것을 참고하면 이들 국가는 사회구성원들 간 사회적 영향력, 즉 협력성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기부비율이 43%에 해당한다는 것은 각 개인이 57%를 자신의 몫으로 챙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과도하게 희생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타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며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자료 1과 2는 인간 행동에 사회적 관계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제시문 (나)와 (다)에서 모두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주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시문 (라)에서 공동체좌에 일정 금액이 모이면 이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고 했으므로 각 개인이 35~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이유는 제시문 (나), (다)입장에서 이 역시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제시문 (다)의 이기적인 인간이 타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이유 역시 자신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이 강한 사회에서 협력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서술한다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